

세이버 교회 소식

-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 PCA 동북부 노회 뉴욕 시찰회 모임
뉴욕 시찰회 모임이 화요일(6일)에 교회에서 있습니다.
시간: 화요일 오전 11시
안건: 정기 봄 노회 준비 모임과 예배 그리고 점심 식사 (최홍만 장로께서 후원해 주십니다)
- 사업체 심방 안내
2018년 신년 사업체 심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날짜와 시간이 있으시면 알려 주세요.
- 2월 구역강사 모임 안내
오늘 식사 후에 1층 친교실에서 2월 구역예배를 위한 구역강사 훈련모임이 있습니다.
- 이번 주 친교(우드사이드 구역)
이번 주는 우드사이드 구역에서 봉사하십니다.
다음 주는 롱아일랜드 구역입니다.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2월 봉사위원

일자	주일기도	수요예배	친 교	안 내
2/04		권한경	우드사이드 구역	한순자
2/11	최홍만	김유순	롱아일랜드 구역	한순자

예배 및 모임 안내

모임	시간	장소
주일예배(1부)	주일 오전 11시 30분	친교실
주일예배(2부)	주일 오후 1시 15분	본당
수요기도회	수요일 오후 8:00	본당
토요새벽기도회	토 새벽 6:00	본당
주일학교	주일 오후 1:15	친교실
성가연습	주일 오전 11시	성가대실
성경공부(방학 중)	수요일 저녁 8시	1층 친교실
	목요일 오전 10시	
	토요일 오전 8시	

주일설교 요약

제목 : 안디옥 교회

본문 : 사도행전 11장 19~26절

기도제목 : 1.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예수님과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2.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3. 그리스도인(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 불리움을 받게 하소서.

2017년도 기준으로 미국 내 한인교회의 숫자는 4천개 정도라고 합니다. LA지역에 1100개, 우리가 살고 있는 뉴욕에 420개, 뉴저지에 260개의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몇 년 전부터는 교회 숫자가 전체적으로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새롭게 세워지기도 하지만 또한 이런 저런 이유로 사라지는 교회들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는 사도행전에 처음으로 등장하는 이방인 교회 안디옥 교회에 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으로 등장하는 2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3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살펴볼 부분은 교회가 세워진 처음의 모습입니다. 어떻게 안디옥 교회가 시작이 되었는지 19~20절에 밝히고 있습니다. 안디옥에 이방인 교회가 세워지는 과정 속에서 중요하게 등장하는 사건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입니다. 스테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3가지의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하여지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열매는 **스데반의 순교는 사도바울의 개종으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사도바울은 스테반의 죽음을 직접 목격한 사람입니다. 처음에는 스테반의 죽음을 아주 마땅한 죽음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스테반의 죽음을 통하여, 특히 스테반이 순교할 때의 모습이 사도바울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 이방인 최초의 교회인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입니다. 스테반의 순교로 시작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진 사람들이 안디옥 지역까지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훗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이자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와같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 속에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먼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냥 세상 사람들 눈에 보이기에 헛된 죽음을 갖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을 살아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주님의 몸 된 교회를 위하여 흘린 피와 수고와 헌신을 절대로 헛되게 만들지 않는 분이심을 우리는 다시 한 번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였습니다. 이름도 나와 있지 않은 무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지를 모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흩어진 무명의 사람들에게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발전하는 모습을 통하여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 세이버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믿습니다. 우리 교회의 모습 속에 사람의 뜻이 드러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온전 하시고 선하신 뜻만이 드러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살펴볼 것은 안디옥 교회의 사역자 바나바에 관한 부분입니다. 바나바의 당부의 말 속에서 눈에 띄는 표현이 있습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는 권면의 말씀입니다.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사역은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주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사역이었습니다. **주님께 붙은 사람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사역자가 해야 할 일이라고 믿습니다. 바나바는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주님께 붙어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바나바를 따르는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 사역을 하지 않고, 주님의 속한 사람을 만드는 그런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역을 감당하기 어려워져 바울을 데리고 함께 사역을 하였었습니다. 그렇게 일 년을 열심히 사역을 하고, 말씀을 통하여 훈련하고 가르쳤을 때, 나타난 결과가 바로 26절 말씀입니다. **"비로서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으로 받게 되었더라"** 그리스도인이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오늘 바나바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성경에 모두 3번 나옵니다. 오늘 본문과 사도행전 26장 28절, 그리고 베드로전서 4:16절에 등장하는데, **모두가 다 불신자들의 입에서 나온 표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을 때,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으로 불려질까요? 예수님께 붙어 있는 모습!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려고 애쓰려 할 때입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세상 사람들에게로부터 불리우게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 예수님께 속한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붙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세이버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모인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들로, 불리울 수 있게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헌금통계

헌금은 본당 입구 헌금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구역별 선교사

롱아일랜드 구역	베이사이드 구역	플러싱 구역	우드사이드 구역
선교사 순희 선교	선교사 우간다	선교사 브라질	선교사 인도

담임목사 정요한

시무장로 최홍만 배한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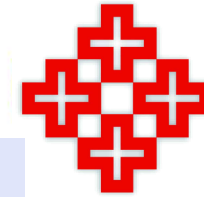
교육전도사 김차인 지휘자/반주자 김타미라

Address: 275 Lakeville Road

Great Neck, NY 11020

☎ Tel : (718) 673-6448 / www.mysaviorchurch.com

2018년 2월 4일



SAVIOR
세이비어 CHURCH
교회

주일예배

	오전 11:30분(1부) 오후 1:15분(2부)	수요일예배
예배로 부르심 Call to Worship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경배와 찬양 말씀 / 정요한 목사 (베드로전서 강해) 기도 / 권한경 권사
▲ 송영 Invocation	찬양대 Chorus	
▲ 고백의 기도 Confession of Sin	다같이 Together	
▲ 찬 송 Hymn	하늘의 문을 여소서	
▲ 신앙고백 Confession of Faith	사도신경 Apostles' Creed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4번(시편8편)	
찬 송 Hymn	368장	
기 도 Prayer	송명건 집사	
성 경 Scripture	사도행전 11장 19~26절	토요일 새벽기도회
찬 양 Praise	세이비어 찬양대	말씀 / 정요한 목사 (사도행전 강해) 토요일 새벽 오전 6시
설 교 Message	안디옥 교회	
▲ 헌 금 Offering	71장 “내게 있는 모든 것을”	
▲ 찬 송 Hymn	383장	
▲ 축 도 Benediction	정요한 목사	
교회소식 Announcement	인도자	

▲ 표는 가능하시면 일어나심 (Standing, If possible)